조계종 기획실장에 삼혜 스님 임명

8월 14일, 사서실장 송하 · 박물관장 탄문 스님


기획실장 삼혜 스님


사서실장 송하 스님


박물관장 탄문 스님

조계종 신임 기획실장에 前사서실장 삼혜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14일 기획실장에 삼혜 스님, 사서실장에 前불교중앙박물관장 송하 스님을 임명했다. 또한 박물관장에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탄문 스님이 승진했으며, 박물관 사무국장에는 도헌 스님이 새로 임명됐다.

원행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한 뒤 "부실장스님들이 화합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소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실장 삼혜 스님은 탄허 택성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했다. 삼장사와 금당사 주지를 비롯해 제 15~16대 중앙종회의원, 사서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영월 보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서실장 송하 스님은 능엄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수계했다. 마곡사 태화선원, 망월사 천중선원, 덕숭총림선원, 고불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불교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보리사 주지를 맡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탄문 스님은 자승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다. 봉암사 태고선원, 마곡사 태화선원, 고불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용덕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경기 광주 백련암 주지를 맡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사무국장 도헌 스님은 지광 스님을 은사로 1991년 수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보광사 보광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윤호섭 기자

비구니회장 육문 · 본각 스님 2파전

8월 15~30일 후보 등록… 9월 18일 임시총회 선출

조계종 6000여 비구니스님들을 대표하는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에 현 회장 육문 스님과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이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현 회장 육문 스님의 임기는 11월 12일 만료된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8월 8일자로 제12대 회장 입후보 등록과 선거관련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후보 등록 기간은 8월 15일부터 30일까지며, 후보는 승랍 40년 이상(연령 65~74세)과 법계 명덕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차기 비구니회장 선출을 앞두고 현재 비구니계 안팎에서는 후보로 육문 스님과 본각 스님이 거론되고 있다. 비구니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본각 스님은 최근 부회장직을 사임하면서 사실상 회장 선거에 나서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으며, 현 회장 육문 스님은 차기 회장 출마를 고사해왔지만 노스님들의 지지를 받으며 재임에 도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임기동안 공약으로 발표했던 비구니 노후복지 증진과 11년만에 비구니 명사법계를 배출한 공적이 밑바탕 됐다. 이에 장고를 거듭하던 육


육문 스님


본각 스님

문 스님은 8월 12일 종무회의에서 출마의사를 집행부에 밝혔다.

한 비구니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육문 스님과 본각 스님의 출마 소식에 2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어느 스님이 유력한지는 알 수 없다.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만큼 비구니스님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차기회장 후보들은 입후보 후 선거관리위원을 5인씩 구성해 9월 3일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선거는 1인 1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임시총회 당일 전국비구니회관에 도착해 점명부에 접수한 회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한다.

윤호섭 기자

불자 성원에 '탄자니아 농부' 배출

조계종 보리가람 농대, 3년 만에 57명 졸업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이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지역에 건립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에서 첫 졸업생이 배출된다. 학교를 건립한지 3년만이다.

조계종은 최근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을 단장으로 방문단을 꾸려 9월 6일 현지 학교에서 1회 졸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은 농업중심 국가인 탄자니아의 빈민 구제를 위해 조계종이 세웠다. 탄자니아는 인구의 80%인 4000여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정작 농지는 전체 토지 중 24%에 불과하다. 소규모 경작으로 농가 51%가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가장 큰 문제는 탄자니아 농민들의 농업기술 부재로 생산성이 낮고, 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농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에도 탄자니아에는 기후조건이 좋은 일부지역에만 농업학교가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아름다운동행은 2013년부터 현지조사를 거쳐 근교농업 발전을 위해 경제수도 다르에스살람 내 농업기술대학이 필요하다는 탄자니아 정부의 요청을 받아 2016년 9월 대학을 설립했다.

그동안 보리가람 농업대학에서는 3년 과정,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원예 농업 교육을 실시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수업료, 기숙사비 및 급식비 전액을 아름다운동행이 부담하고, 학생들은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만 부담했다. 그 결과 이번에 1회 졸업생 57명 모두 원예농업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으며, 이들 학생 상당수가 4년제 대학 편입을 통해 농업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다.

9월 6일 탄자니아서 첫 졸업식

원예 · 농업교육에 한국문화 교육

10여명 불자 수계, 연등회 참가

농업전문가 삶 설계, 감사 표해

또 이들 대부분이 한국어교육을 함께 받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매주 화요일 학교에서는 아름다운동행 봉사단원을 교사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됐다.

또 5월 중간고사 시험 전에는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연등을 만들고 팔상도 전시전을 관람하는 등 다양한 불교전통 체험도 지속적으로 마련됐다.

이런 관심으로 실제 2017년 연등회를 앞두고 탄자니아 학생과 교사 등 10여명은 한국을 방문해 불자가 되는 수계의 식을 받았다. 당시 이들은 연등회와 봉축법요식 등에도 참여해 신심을 키웠다. 여기에 '탄자니아에서 온 편지' 등 웹소식으로 활동모습을 알린데 이어 2019년 1월에는 탄자니아 보리가람 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한국불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소식지 '보리가람'을 펴내기도 했다.


보리가람대학을 졸업하는 탄자니아 청년들이 밝게 미소 짓고 있다.

조용진 탄자니아 지부장은 "탄자니아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경제 규모가 작아 전공을 살려 직업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종합대학을 진학하면 농업관련 공무원 기회가 많고 교사도 할 수 있어 80%가 진학을 꿈꾸고 있다. 여기에 20%는 고향에서 농장경영을 꿈꾸고 있다"며 "몇몇은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혹은 탄자니아에 농업투자자를 연결할 수 없냐는 얘기를 한다. 이들에게 불자로서 해줄 말은 성실히 살며 정진하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그동안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서 도움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았다. 특히 한국불자들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은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대학은 향후 동창회를 만들어 졸업생들의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자공 스님은 "많은 불자들의 후원으로 이 같은 인재불사를 이뤄낼 수 있었다. 한국불교의 저력을 알리고, 세계에 부처님 자비광명을 펼치는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대학의 활동은 이제 시작"이라며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탄자니아에 머물며 보리가람 대학 1회 졸업식과 함께 자비나눔행을 펼친다.

중앙종회의원 보궐, 무투표 당선 유력

공석 5석에 5명 입후보… 자격심사 통과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4명의 직선직 스님들이 투표 없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8월 13일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5인의 자격을 심사,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앞서 차석부의장 주경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제7교구본사 수덕사 종회의원에는 서울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 종민 스님 입적에 따른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종회의원에는 불국사 부주지 정문 스님이 입후보했다. 또한 일원스님의 사직으로 인한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종회의원에는 완주 송광사 법진 스님, 법상 스님의 대흥사 주지 임명에 따른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종회의원에는 서울 용덕사 주지 향문 스님이 후보로 등록했다. 초격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직선직 29일, 직능 26일 확정

216회 임시회 9월 19일 개원

종헌개정안 · 종정감사 등 다뤄

직능대표 법제분과에는 남양주 묘적사 주지 환풍 스님이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는 8월 29일 각 교구본사에서 열리지만 단독 입후보의 경우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직선직 4명의 스님은 당일 당선증을 받게 된다. 직능대표에 입후보한 환풍 스님은 8월 26일 열리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당선여부가 정해진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8월 12일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제216회 임시회를 9월 19일부터 5일간 회기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16회 임시회서는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교구본사특별분담사찰 설치와 관련된 종헌 · 종법개정안을 비롯해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성안 중인 종법개정안, 종책질의, 종무보고, 각종 위원회 활동 보고, 재심호계위원 · 법규위원 선출과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다뤄진다. 안건접수는 9월 12일 마감하며, 종책질의는 14일 마감한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이번 임시회서는 기존에 대부분 문건 대체로 처리했던 특위활동과 종무보고, 종책질의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회의가 될 것"이라며 "종단의 입법기구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문화재정책 개선 불교계 의견 반영"

정재숙 청장, 13일 원행 스님 예방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8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안팎으로 논란이 된 문화재위원 위촉 등 불교계 요청 사안들에 대해 적극 검토 · 수용할 뜻을 밝혔다.

정 청장은 "논란이 된 결원 문화재위원 5명을 종단에서 추천하면 언제든지 위촉하겠다. 2년 뒤 차기 위원 위촉에서는 전 분과에 문호를 열겠다"면서 "5년마다 '문화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오는 2022~2026년 계획 마련에 불교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문화재청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불교와 사찰 문화재 보존 관리에 더 많은 예산 반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국난극복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宗正教示

불교는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로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픔과 슬픔과 고뇌를 국민과 함께하여 왔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략으로 국민이 도탄에 빠졌을 때
국민의 염원을 담아 팔만대장경을 각자 조성하면서
국난을 극복하였고,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서산 · 사명 · 처영 대사께서 일본과 화친을 맺어 구국호국하신 정신을 이어받아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한중일 불교협의회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일 양국의 정치인은 상대적 대립의 양변을 여의고
원융무애한 중도의 사상으로 자성을 회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불교는 국가와 민족의 구분 없이
동체대비의 자비실현과 사바세계 생명평화를 영구히 보존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한 · 중 · 일 삼국불교는 한일 양국의 존엄한 안보와 경제를 위하여
조석으로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여 축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3년 8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